

# MMPI 프로파일 유형들에 따른 자아방어기제의 특성

전 현 민                      박 영 속

이화여대 심리학과    이화여대 의과대학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자아방어기제 특성을 MMPI의 군집분석 결과로 나타난 프로파일 유형들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먼저 MMPI 하위척도들에 대한 군집분석을 해 본 결과 1) 정상 프로파일 집단 I(MMPI 하위척도들의 T점수가 47이하에 속함) 2) 정상 프로파일 집단 II(T점수가 48-55 사이임) 3) 신경증적 프로파일 집단 4) 정신증적 프로파일 집단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이러한 각 집단들이 다른 집단들과 비교해 어떠한 방어기제들을 의미있게 더 많이 사용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정상 프로파일 집단 I은 신경증적 프로파일 집단에 비해 왜곡, 승화, 유우머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합리화 방어기제는 정상 프로파일 집단 II나 신경증적 프로파일 집단에 비해 정상 프로파일 집단 I에서 더 많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정상 프로파일 집단 I은 신경증적 프로파일 집단이나 정신증적 프로파일 집단보다 예견이란 자아방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둘째, 정상 프로파일 집단 II는 신경증적 프로파일 집단보다 유우머를 더 많이 사용하는 특징을 보였다. 셋째, 신경증적 프로파일 집단은 정상 프로파일 집단 I에 비해 투사, 해리, 행동화를 더 많이 사용하고, 정상 프로파일 집단 II에 비해서는 수동의 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정상 프로파일 집단 I과 정상 프로파일 집단 II 둘 다 보다 신체화나 회피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넷째 정신증적 프로파일 집단은 나머지 세 집단들보다 전치, 해리를 더 많이 사용하고, 두 정상 프로파일 집단들과 비교해서 수동 공격적, 투사, 신체화, 행동화, 퇴행과 같은 방어들을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정상 프로파일 집단 I에 비해서는 회피를, 정상 프로파일 집단 II에 비해서는 허세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반동형성이나 동일시와 같은 방어는 전체 평균값이 높으면서 각 집단간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이는 청년기에 해당되는 대학생들이 분류된 집단 특성과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방어기제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자아 방어기제란 개인 내적인 욕구와 환경적인 자극을 조정하려는 무의식적 정신과정이거나 이러한 목적을

지닌 의식적 행동이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자아 방어기제는 무의식적 정신 내적 과

정 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행동까지 포함되며, 따라서 개인의 의사결정에 따른 적응행동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Bond, Gardner, Christian, Sigal, 1983).

자아방어기제는 처음에 신경증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기 시작하여(Freud, 1894, 1926; Anna Freud, 1937), 한 개인의 성격 특징, 적응방식, 생활양식 등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정상인은 물론 임상에서 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도 중요한 요소임이 지적된 바 있다(Vaillant, 1971; Maddi, 1980). 또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자아방어기제들이 개인의 정신건강이나 정신장애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고, 개인의 정신건강을 예견해 줄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Vaillant, 1977, 1985; Luborsky, 1962; Battista, 1982; Endicott, 1976; Bond, 1983; Kaplan, 1989).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정신건강의 정도에 따라 적응행동으로써 사용되는 자아방어기제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관심을 두었으며, 그 방어기제들을 특히 Vaillant, Bond 및 Vaillant(1986)들이 언급한 성숙단계에 비추어 해석해 보고자 했다. 다시말해 건강한 사람과 보다 덜 건강한 사람들이 어떤 자아방어기제를 사용하며, 그 방어기제들의 성숙단계들도 함께 알아보려고 했다.

이전의 선행연구들에서 방어기제와 증상과의 관계(Noam & Recklitis, 1990)나 방어기제와 성격과의 관계(조두영, 1985; Hann, 1965, 1977; Vaillant, 1975, 1985)를 다룬 바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처럼 MMPI를 사용하여 자아방어기제들간의 관련성을 알아본 연구들이 있었다. Trimboli와 Kilgore(1983)은 MMPI를 사용하여 각 임상척도와 방어기제와의 관련성을 연구하였으며 여기서 Hy척도는 억압기제와, Pd척도는 외현화, 행동화, 합리화, 주지화 등의 기제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a척도는 투사나 외현화기제와 관련이 있으며 Ma척도는 부정, 행동화와 관련이 있었다. Si척도는 회피 방어기제와 관련이 있었다. 배지연(1993)도 각 하위척도들과 자아방어기제들간의 관계를 살펴 본 바 있다. 그 결과 MMPI의 Hs척도는 신체화기제, D척도는 신체화와 회피기제, Hy척도는 신체화기제, Pd척도는 투사와 신체화기제로 설명되

며, Mf척도는 남성의 경우 신체화기제와 여성의 경우 왜곡과 이타주의 기제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또한 Pa척도는 투사, 해리, 신체화기제로, Pt척도는 회피, 신체화기제로, Sc척도는 신체화, 회피, 투사기제로, Ma척도는 행동화, 왜곡, 신체화, 유머, 수동공격, 퇴행기제로, 마지막으로 Si척도는 회피, 해리 기제로 설명된다고 보고하였다.

위의 연구들은 MMPI의 각 하위척도들과 어떤 방어기제들이 관련이 있는지 알아본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MMPI의 프로파일 유형들에 따라 의미있게 사용되는 방어기제들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봄으로써 좀더 종합적인 정보를 얻는 데 관심이 있었다. 즉 MMPI 척도들로부터 나타난 프로파일 유형들에 기초하여 정상 집단, 신경증적 프로파일 집단, 그리고 정신증적 프로파일 집단들이 어떤 자아방어기제들을 사용하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이렇게 각 집단별로 주된 자아 방어기제를 살펴봄으로써 각 집단의 적응행동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보다 건강한 적응행동방식은 어떤 방어기제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서울 시내 3개 대학교와 지방 소재 2개 대학교의 남, 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330명에게 검사를 실시하여 그 중 응답의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등을 제외한 283명이 최종적으로 분석되었다. 피검자의 성별분포는 총 283명 중 남, 여가 각각 128명, 155명이었다.

### 평가도구

#### 1. MMPI

566문항으로 된 다면적 인성검사(김영환 · 김재환 · 김중술 · 노명래 · 신동균 · 염태호 · 오상우, 1989)를 이용하였다.

2. 이화방어기제 검사(Ewha Defence Mechanism Test)

자아방어기제가 개인의 성격과 적응을 이해하는데 주요한 기본요소임을 전제로 우리나라 전래 속담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다. 김재은, 이근후, 김정규 및 박영숙(1991)에 의해 제작되었다. 이 검사의 재검사 신뢰도는  $r=.72$  이상이었다. 이 검사는 20가지 방어기제 하위척도가 있고 각 척도마다 10개 문항, 전체 200개 문항이 5점 척도로 평가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자료처리

우선 MMPI의 각 척도들에서 유사한 성격 프로파일을 보이는 사람을 몇개의 하위 집단으로 묶기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하였다. 군집 분석에서 거리측정방법으로 자동화된 유클리디언 거리를 사용

하였고, 군집화 방법은 평균결합법이었다. 그런 다음 군집 분석 결과로 나온 하위 집단을 독립변인으로 삼고 이화방어기제 검사의 20개 하위척도들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 변량분석(one-way ANOVA)을 하였다. 이화방어기제의 각 하위척도별 집단간의 차이에 대한 사후 비교는 Scheffé 검정으로 하였다.

결과 및 논의

1. MMPI 군집분석

표 1.에 각 집단의 명칭과 사례수, MMPI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각 집단별 MMPI 하위척도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1을 보면 정상

표 1. 각 하위 집단별 MMPI의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변량분석 결과

MMPI 척도	집단 I <sup>a</sup> 평균	집단 II <sup>b</sup> 평균	집단 III <sup>c</sup> 평균	집단 IV <sup>d</sup> 평균	F	사 후 비 교
L	56.83 (10.12)	52.03 ( 9.42)	55.28 (10.28)	51.91 (11.39)	4.56**	II < I **
F	43.28 (6.10)	46.81 (5.33)	55.07 (7.47)	66.70 (10.29)	100.68**	I < IV, III, II** II < IV, III** III < IV**
K	56.24 ( 9.24)	54.72 (11.44)	52.63 ( 8.11)	48.48 ( 7.93)	4.54**	IV < I **
HS	45.01 (6.76)	51.86 (7.91)	61.37 (7.03)	60.83 (7.78)	70.20**	I < III, IV, II** II < III, IV**
D	42.61 ( 6.42)	51.50 ( 6.73)	62.56 ( 8.68)	56.91 ( 9.10)	95.31**	I < III, IV, II** II < III** II < IV* IV < III*
Hy	42.74 (6.30)	52.39 (7.81)	60.87 (8.95)	57.91 (8.20)	77.04**	I < III, IV, II** II < III** II < IV*
Pd	42.62 ( 7.93)	54.16 ( 7.86)	60.33 (10.30)	57.91 ( 7.62)	65.06**	I < III, IV, II** II < III**
Mf	51.78 (10.24)	50.07 ( 9.18)	51.93 ( 8.50)	50.26 ( 9.14)	.79	
Pa	44.23 ( 6.94)	53.54 ( 8.21)	54.15 ( 7.30)	70.43 ( 8.61)	81.31**	I < IV, III, II** II < IV** III < IV**
Pt	41.76 ( 6.63)	50.03 ( 6.54)	61.24 ( 9.96)	61.00 ( 9.43)	113.59**	I < III, IV, II** II < III, IV**
Sc	42.22 (5.97)	48.82 (6.03)	59.44 (8.19)	68.00 (7.51)	141.03**	I < IV, III, II** II < IV, III** III < IV*
Ma	46.79 (10.59)	50.70 ( 9.62)	49.43 ( 7.69)	62.65 ( 8.16)	17.48**	I < IV III < IV II < IV** I < II*
Si	44.87 ( 9.85)	48.49 ( 9.15)	56.44 ( 8.67)	55.17 (11.65)	20.41**	I < III, IV** II < III** II < IV*

\*  $p < .05$ , \*\*  $p < .01$  ( )는 표준편차임

a : 정상 프로파일집단 I(n=99)

c : 신경증적 프로파일집단(n=54)

b : 정상 프로파일집단 II(n=107)

d : 정신증적 프로파일집단(n=2)

프로파일 집단 I은 MMPI의 척도 대부분이 T점수 47 이하에 걸쳐 있으므로 통계분포상 보다 극단적인 양상의 정상 프로파일 집단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 집단 II는 MMPI의 척도 대부분이 T점수 48-55사이에 해당되므로 정상 프로파일 집단으로 여겨진다. 세번째, 신경증적 프로파일을 보이는 집단은 주로 1, 2, 3 척도가 T점수 60이상이며 그외에 4, 7번 척도도 60점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네번째 정신증적 프로파일을 보이는 집단은 6, 7, 8, 9 척도가 T점수 60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에 각 하위 집단의 MMPI 프로파일 유형들을 제시하였다.

## 2. 각 집단별 자아방어기제 특성

표 2.에 각 집단별 자아방어기제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변량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집단간 차이가 의미있게 나온 척도에 대해 scheffé 검증을 한 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상 프로파일 집단 I, 정상 프로파일 집단 II, 신경증적 프로파일 집단, 정신증적 프로파일 집단순으로 각 집단이 다른 집단들과 비교해서 의미있게 많이 사용하는 방어기제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번째, 정상 프로파일 집단 I에 속하는 대학생들은 정상 프로파일 집단 II에 속하는 대학생들보다 합리화를 더 많이 사용하고 신경증적 프로파일을 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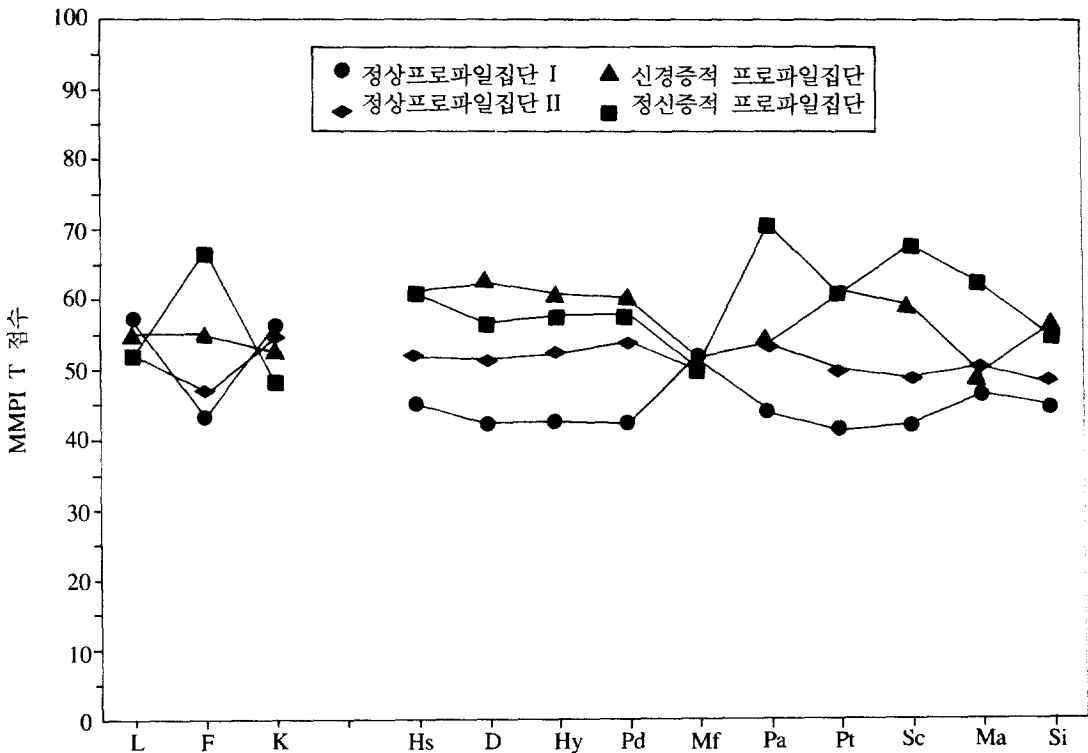


그림 1. 각 하위집단의 MMPI 프로파일

표 2. 각 집단별 방어기제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변량분석 그리고 Scheffé 사후검증 결과

자아방어	집단 I <sup>a</sup> M(SD) <sup>e</sup>	집단 II <sup>b</sup> M(SD)	집단 III <sup>c</sup> M(SD)	집단 IV <sup>d</sup> M(SD)	F	사 후 비 교
1. 허세	5.45(1.86)	5.30(1.86)	5.81(1.79)	6.65(2.31)	3.68**	II<IV*
2. 반동형성	5.57(1.84)	5.64(2.05)	5.91(1.92)	6.43(2.00)	1.47	NS
3. 동일시	5.62(1.92)	5.78(2.26)	5.93(2.11)	6.87(2.20)	2.25	NS
4. 수동 공격적	4.93(2.01)	4.79(2.04)	5.89(2.33)	6.83(2.21)	8.47**	I<IV** II<IV** II<III*
5. 투사	4.79(2.09)	5.32(2.03)	6.20(2.10)	7.22(2.15)	11.47**	I<IV, III** II<IV**
6. 전치	4.93(1.95)	5.15(2.01)	5.69(2.07)	7.13(1.79)	8.51**	I, II<IV** III<IV*
7. 부정	4.89(1.78)	4.22(1.77)	4.43(1.81)	5.00(2.45)	2.76*	NS
8. 통제	5.57(1.88)	5.45(2.09)	4.83(2.09)	5.78(2.33)	1.90	NS
9. 억제	5.78(1.83)	5.41(2.07)	4.87(1.78)	4.96(2.23)	2.92*	NS
10. 왜곡	5.78(1.82)	5.03(2.05)	4.85(1.84)	5.52(2.06)	3.79**	III<I*
11. 예견	5.97(1.88)	5.62(1.86)	4.91(2.02)	4.57(2.37)	5.51**	III, IV<I**
12. 합리화	5.59(1.96)	4.66(1.75)	4.22(1.94)	4.57(1.73)	7.69**	II, III<I**
13. 해리	4.85(2.01)	5.07(2.02)	5.83(2.24)	7.57(1.08)	13.20**	I, II, III<IV** I<III*
14. 신체화	4.52(1.83)	4.96(1.97)	6.09(1.94)	7.09(2.00)	16.09**	I, II<IV, III**
15. 승화	6.07(1.92)	5.72(1.98)	4.96(1.78)	5.83(1.99)	3.92**	III<I**
16. 행동화	4.77(1.74)	5.07(1.79)	5.67(1.94)	6.35(2.23)	6.14**	I<IV** II<IV* I<III*
17. 이타주의	5.53(1.73)	5.50(2.05)	4.69(2.23)	5.09(2.23)	2.58*	NS
18. 퇴행	5.43(2.36)	5.52(2.22)	6.31(2.20)	7.17(2.10)	5.17**	I, II<IV*
19. 유우머	5.69(2.01)	5.67(2.05)	4.70(2.21)	5.74(2.28)	3.35*	III<I, II*
20. 회피	4.81(1.97)	5.18(1.93)	6.11(2.03)	6.35(2.23)	7.28**	I<III** II<III* I<IV*

\*  $p<.05$ , \*\*  $p<.01$ 

a : 정상 프로파일집단 I

b : 정상 프로파일집단 II

c : 신경증적 프로파일집단

d : 정신증적 프로파일집단

e : SD=표준편차

는 대학생들보다 왜곡, 예견, 합리화, 승화, 그리고 유우머 방어기제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정신증적 프로파일을 보이는 대학생들에 비해서는 예견이란 방어기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 정상 프로파일 집단 II는 신경증 프로파일 집단에 비해 유우머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세번째, 신경증적 프로파일을 보이는 대학생들은 정상 프로파일 집단 I에 속하는 대학생들보다 투사, 해리, 신체화, 행동화, 퇴행, 그리고 회피와 같은 방어기제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정상프로파일 집단 II에 속하는 대학생들에 비해서는 신체화와 회피 방어기제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네번째, 정신증적 프로파일을 보이는 대학생들은 정상 프로파일 집단 I에 속하는 대학생들보다 수동공격적, 투사, 전치, 해리, 신체화, 행동화, 퇴행, 회피와 같은 방어기제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정상 프로파일 집단 II에 속하는 대학생들과 비교해보면 허세, 수동공격적, 투사, 전치, 해리, 신체화, 행동화, 퇴행의 방어기제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신경증적 프로파일 집단과 비교해 보면 전치와 해리 방어기제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지금까지 각 집단별로 다른 집단들과 비교해서 주로 사용되는 방어기제들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렇게 각 집단이 주로 많이 사용하

는 방어기제들이 어떤 종류의 방식에 속하며 어느 성숙단계에 속하는지 알아보면서 각 집단별 방어기제 특성에 대해 좀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각 집단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어기제들이 어떤 종류의 방식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화방어기제 검사 표준화 연구(이근후, 김재은, 김정규, 박영숙, 1991)에서 요인분석 결과 나온 4개 요인(불안정한 예민화 방식, 자아확대적 방식, 자아부정적 방식, 행동억제적 방식) 등과 관련지어 해석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또한 몇몇 선행 연구들은 자아방어기제들이 개인의 정신건강이나 정신장애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고 개인의 정신건강을 예견해 줄 수 있음을 밝히며 있다(Luborsky, 1962; Endicott, 1976; Vaillant, 1977; Battista, 1982; Bond, 1983; Vaillant, 1985; Kaplan, 1989).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자아방어기제의 성숙단계가 4단계로 제시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성숙단계에 근거해서 각 집단별 주요 방어기제들의 성숙단계 정도를 알아보려고 한다. 위의 연구들을 근거로 각 집단별로 다른 집단들에 비해 의미있게 많이 사

용하는 방어기제들이 어떤 방식에 속하는지 그리고 어느 성숙단계에 해당하는지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보다 건강한 사람들은 자아확대적이고 성숙한 단계의 자아방어기제들을 주로 사용하는 반면, 덜 건강한 사람들은 불안정한 예민화 방식이나 자아부정적인 방식으로 또한 덜 성숙한 단계의 자아방어기제들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적으로 본 연구가 알아보려고 했던 주된 결과는 아니지만 MMPI 프로파일 유형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못한 방어기제들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한다. MMPI 프로파일 유형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못한 방어기제들은 반동형성, 동일시, 부정, 통제, 억제, 그리고 이타주의이었다. 본연구의 대상이 대학생집단임을 고려해 볼 때 흥미있는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반동형성이나 동일시는 프로파일집단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평균으로 보았을 때 첫 번째, 세번째로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대학생집단이 프로파일 유형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어기제들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부정, 억제, 그리고 이타주의 기제들은 전체 평균값들을

표 3. 각 집단별 주된 방어기제들의 방식과 성숙단계

집 단	자아방어의 방식	자아방어의 성숙단계
정상 프로파일 집단 I	자아확대적 방식: 승화 왜곡 유우머 행동억제적 방식: 합리화 예견	성숙단계 IV: 유우머 승화 예견 신경증적 단계 III: 합리화 자아도취적 단계 I: 왜곡
정상 프로파일 집단 II	자아확대적 방식: 유우머	성숙단계 IV: 유우머
신경증적 프로파일 집단	불안정한 예민화 방식: 투사 수동공격 해리 신체화 행동억제적: 회피	신경증적 단계 III: 해리 미성숙 단계 II: 회피 수동공격 신체화 자아도취적 단계 I: 투사
정신증적 프로파일집단	불안정한 예민화 방식: 행동화 전치 해리 투사 수동공격 행동억제적 방식: 회피 자아부정적 방식: 허세 퇴행	신경증적 단계 III: 허세 전치 해리 미성숙 단계 II: 수동공격 신체화 행동화 퇴행 회피 자아도취적 단계 I: 투사

고려해 볼 때 반동형성이나 동일시와는 반대로 대학생집단이 전반적으로 덜 사용하는 방어기제들임을 암시해준다. 이러한 결과들은 연령에 따른 자아방어기제의 차이에 관한 연구(박영숙, 1993)에서 반동형성이나 동일시는 연령이 낮을 수록 많이 사용하고 부정, 억제, 그리고 이타주의와 같은 방어기제는 나이가 높을 수록 많이 사용하는 방어기제임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위에 제시한 방어기제들은 각 프로파일 유형별로 의미있게 차이를 보이는 않지만 본연구의 대상이 대학생집단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프로파일 유형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못한 위의 방어기제들이 다른 연령집단들에 비해 많이 사용되거나 또는 적게 사용되는 방어기제들임을 시사해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대상이 대학생집단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인생 전반에 걸쳐 정신건강의 정도와 자아방어기제간의 관계를 폭넓게 이해하려면 다른 연령 집단이나 성별을 고려한 추후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김영환 · 김재환 · 김중술 · 노명래 · 신동균 · 염태호 · 오상우(1989). 다면적 인성검사 실시요강. 서울, 한국가이던스

김재은 · 이근후 · 김정규 · 박영숙(1991). 이화방어기제 검사 실시요강. 서울, 하나출판사.

이근후 · 김재은 · 김정규 · 박영숙(1991). 이화방어기제 검사 표준화연구. 정신의학, 30(3), 582-592.

조두영(1985). 임상행동과학. 서울, 일조각.

박영숙(1993). 연령에 따른 자아방어기제의 차이에 관한 연구. 이화의대지, 16(2), 133-143.

배지연(1993). MMPI 하위척도가 나타내는 성격특성과 자아의 방어기제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attista, J. R. (1982). Empirical study of Vaillant's hierarchy of ego functions. *American Journal of*

*Psychoanalysis*, 139(3), 356-357.

Bond, M., Gardner, S. T., Christain, J., & Sigal, J. J. (1983). Empirical Study of Self-rated Defense Style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0, 333-338.

Endicott, J., Spitzer, R. L., & Fleiss, J. L. (1976). The global assessment scal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3, 766-771.

Freud, S. (1894). *The Neuro-Psychoses of Defense*. In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 of Sigmund Freud, Vol. 3., London: Hogarth press.

Freud, S. (1926). *Inhibition, Symptoms, and Anxiety*. Ibid, Vol. 20.

Freud, A. (1937). *The Ego and the Mechanism of Defense*. London: Hogarth Press.

Hann, N. (1965). Coping and Defense Mechanisms Related to Personality Inventorie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4), 373-378.

Hann, N. (1977). *Coping and Defending: Process of Self-Environment Organiz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Kaplan, H. L., & Sadock, B. J. (1989). *Comprehensive textbook of Psychiatry IV*. Baltimore, Williams & Wilkins.

Luborsky, L. (1962). Emotionality and Perceptual defense. *Psychological Review*, 56, 244-251.

Maddi, S. R. (1980). *Personality theories*. 4th ed., Illinois: the Dorsey Press.

Millon, T., & Everly, G. S. (1985). *Personality and Its Disorder: A Biosocial Learning Approach*. N.Y.: John Wiley & Sons.

Noam, G. G., & Recklikis, C. J. (1990). The Relationship Between Defenses and Symptoms in Adolescent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 311-327.

Trimboli, F., & Kilgore, R. B. (1983). A Psychodynamic Approach to MMPI Interpretation. *Journal*

- of Personality Assessment*, 47(6), 616-626.
- Vaillant, G. E. (1971). Theoretical Hierarchy Adaptive Ego Mechanism.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25, 107-118.
- Vaillant, G. E. (1975). Natural History of Male Psychological Health.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2, 420-426.
- Vaillant, G. E. (1977). *Adaptation to Life*. Boston, MA: Little Brown.
- Vaillant, G. E. (1985). Maturity of ego defenses in relation to DSM-III axis II personality disorde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2, 597-601.
- Vaillant, G. E., Bond, M., & Vaillant, C. O. (1986). An Empirically Validated Hierarchy of Defense Mechanism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3, 786-794.



## The Relation Between MMPI Profile Types by Cluster Analysis and Defense Mechanisms in University Students

Hyun-Min Jun      Young-Sook Park

Ehwa Women's Univ.      Ehwa Women's Univ.  
Dept. of Psychology      Dept of Psychiatry

This study was attempted to explore the relation between MMPI profile types by cluster analysis and defense mechanisms in University students. By the cluster analysis of MMPI subscales, 1) Normal Group I(T score  $\leq 47$ ) 2) Normal Group II ( $48 \leq T$  score  $\leq 55$ ) 3) Neurotic Group 4) Psychotic Group were extracte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using defense mechanism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Normal group I and II used more humor, sublimation, rationalization, anticipation than neurotic and psychotic group. Neurotic group used more projection, passive-aggressive behavior, dissociation, somatization than two normal groups. Psychotic group used more displacement, dissociation than the other three groups. Psychotic group used more passive-aggressive behavior, projection, somatization, acting out, regression than normal groups. In summary, while normal groups used mature defense mechanisms, neurotic and psychotic groups used immature mechanisms.